



광주학생독립운동 계승 민관협의회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는 학생독립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 2020년 출범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광주시·광주지방보훈청 등 6개 공공기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등 4개 단체 등 총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 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주관 ‘학생독립운동 글짓기 및 그림 시화 그리기 대회’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총서 발행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연구학술용역 등 기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전국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조달청, 혁신제품기업 표창장 전수

광주조달청(청장 김우환)은 최근 화순군에 소재한 혁신제품 지정 기업 유한회사 마나(대표 조재훈)를 방문해 조달청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마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도모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바가 커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마나는 실내벽체마감패널 전문기업으로 천연황토와 다공성 광물질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다공성 광물질 구조의 광촉매 황토보드’가 2024년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광촉매 기능, 준불연 성능, 단열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품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대-몽골 지방정부 4곳, 협약 체결

광주대학교는 최근 교내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몽골 지방정부 4곳과 우수인재 교류, 기관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대와 몽골 4개 지방정부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공동 운영 프로그램(상호학위 인정 2+2, 3+1), 한국어 교육 및 기타 공동 교육 프로그램, 단기연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호 방문, 교육 등 협력 교류 활동과 여름캠프 및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방식의 정기적인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진 총장은 “몽골의 국정을 이끌고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귀빈들의 무גע감 있는 방문에 무한한 신뢰를 표한다”며 “몽골이 그려가는 국가의 정사진 속에 광주대가 우선순위의 교육·산업·문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세방그룹, 광주지역 올해 첫 ‘나눔명문기업’ 가입

어르신·저소득층 복지향상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등 선행

세방그룹이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1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세방그룹은 올해 초 5억원의 기부금을 광주시에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정식으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방그룹 본사에서 열린 가입식 세방전지(주) 박정희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세방그룹의 기부금은 광주지역 어르신 체육 및 복지향상, 저소득층 명절·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배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방그룹은 1980년대 하남산업단지에 자동차 배터리 국내 1위 브랜드인 로케트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방전지 연속전지 공



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가 지난달 29일 서울 세방그룹 본사에서 박정희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과 함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가졌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21년에는 계열사 세방리튬배터리가 약 1,200억원을 투자해 평동산업단지 내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공장을 준공, 운영하며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프로젝트 ‘희망스위치 ON’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겨울철 연탄 지원 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돕고 있다.

박정희 세방전지(주) 대표이사는 “세방그룹은 광주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기업

이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은 “세방그룹은 물류와 배터리 제조를 기반으로 산업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지역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GICON, 호남IS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 마쳐

(재)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개최한 ‘2025 호남IS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일환으로 GICON이 주관해 개최됐다. ‘넥스트 호남: ICT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세미나는 광재도 인공지능융합사

업단 본부장의 ‘AI 집적단지 및 국가데이터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강양제 경상국립대 교수의 ‘농생명 바이오 빅데이터와 거대 언어모델 활용’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CTO의 ‘미래모빌리티와 AI 활용’ 등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다.

세션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실감형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GCC 스튜디오(MX, MR, VX) 투어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호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되며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청자들도 폭넓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호남 지역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

하고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술 확산과 실증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조형호 전남대병원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은 조형호 이비인후과 교수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조 교수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단장을 맡아 석·박사 학생을 지도해 왔다.

의료기술 사업화와 지도학생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등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에 기여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있다”며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써 이들이 진료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동부지부,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가 에스아이이엔지(주) 홍수현 대표와 ㈜오케이이엔지 홍수현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19호·20호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보호대상자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해 후원해왔다.

전달식에는 보호대상자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해 온 장동연 교육취업위원회장도 동참했다.

에스아이이엔지 윤승현·오케이이엔지 홍수현 대표는 “작은 나눔이 큰 도움과 보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꾸준한 후원은 보호대상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힘”이라며 “따뜻한 나눔이 더 많은 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동신대 학생들이 ‘정원드림프로젝트’ 선정

동신대학교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전주권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일 동신대에 따르면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서울, 대전, 세종, 평택, 전주 등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권역별로 5개 팀씩 전국 총 25개 팀(125명)을 선발했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는 ‘에덴의 결(Eden's Resolve)’이라는 제목의 정원 아이디어로 도시 유휴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핵

심 가치로 삼아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수관 식재 △빛물정원 도입을 통한 물순환 회복 △수분 매개 곤충과 자생식물 중심의 생태 구조 설계를 담고 있다.

박현석·노건웅·김태경·조형준·정소이 산림조경학과 학생 등 5명이 팀을 이뤄 생태적 정원 설계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 작가와 함께 실습 정원을 기획·조성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원 조성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1전비, 사회복지시설 급식 봉사활동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1전비 군무원단장을 비롯한 군무원 12명이 참여해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손질 등을 맡고 1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